

Estelle Lagarde

에스텔 라가르드

Présentation des photographes de l'art contemporain européen.

유럽의 현대 사진가

프랑스 태생의 젊은 작가 Estelle Lagard는 DPLG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진작가이다. 공간과 시간을 주제로 한 그녀의 작업들은 철학과 심리학에 모태를 두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 시리즈 중 하나인 <Femmes Intérieures>는 agence londonienne에서 밀레니엄 이미지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판매 중이다. 현재 파리 소재의 갤러리 Lefor Openo에서 2010년 1월 9일까지 그녀의 사진 시리즈 중의 하나인 <Contes Sauvages>로 개인전을 가지고 있다.

글 박해린 (프랑스 주재 객원기자)



Le Baron et l'enfant - ©Estelle Lagarde



Dernier Balser - ©Estelle Lagarde



Mascarade - ©Estelle Lagarde



oiseau noir - ©Estelle Lagarde

Contes Sauvages 야생 이야기 Hôpital 병원

『그녀의 사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non-lieux), 더 나아가 생명이 있었던 장소나 변형되거나 노화되고, 그러나 기억이 관통하며 그 기억이 아직도 교차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사라지지 않는 유체역학 현상을 지닌 그녀의 사진은 공간과 건축양식의 감수성과 장시간의 노출에 의해 만들어진다.』

Estelle Lagarde의 작품은 시간을 초월한 공간으로의 초대이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 어딘가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아이오이스트(그리스어 동사시제로서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는 과거를 뜻하며, 불확정성과 정의되지 않은 무한함을 의미한다. 그녀 사진의 본질은 시간에 관한 철학적 개념인 <ça a été, 과거에 그러했다.>와 같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사진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며, 순간을 불멸하게 만드는 것인 동시에, 표현이며 역사이자, 프랑스의 철학자 Roland Barthes은 시간의 개념을 자신의 철학과 집묵시경과 동시에 <세상에서의 직접적인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Estelle Lagarde는 이 컨셉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반대의 컨셉에 심취한다. 움직임과 신비한 힘의 포착으로 시간은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던 경직된 시간의 표현이 아니다. 다시 말해, 움직임의 끊임없는 표현과 시간의 불확실성이다. 그녀의 사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non-lieux), 더 나아가 생명이 있었던 장소나 변형되거나 노화되고, 그러나 기억이 관통하며 그 기억이 아직도 교차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사라지지 않는 유체역학 현상을 지닌 그녀의 사진은 공간과 건축양식의 감수성과 장시간의 노출에 의해 만들어진다.



For Ever - ©Estelle Lagarde



Chirurgie Plastique - ©Estelle Lagarde



Cours d'anatomie - ©Estelle Lagarde

「파동 치는 실루엣의 주제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시대의 증거들이다. 이 해체된 세계와 범위 외의 영역은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에 의해 변장된다.」

Estelle Lagarde의 작품 속에 촬영된 이미지는 마치 유명같이 포착할 수 없으며, 느껴지지 않는 것들의 포착이다. 힘에 해 보이는 정소나 인물은 그 자체로서 사진 속에 존재하며 장면 속에 놓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건축양식에 대한 증언으로 작용하며, 유령 같은 이미지 또는 스펙트럼은 분해되어 뒤범벅이 된 벽들과 하나가 되어 작용한다. 파동치는 실루엣의 주제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시대의 증거들이다. 이 해체된 세계와 범위 외의 영역들은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에 의해 변장된다.



Le laboratoire - ©Estelle Lagarde



La salle d'attente - ©Estelle Lagarde



Esquiroi - ©Estelle Lagarde



La chapelle - ©Estelle Lagarde

그녀의 작품 시리즈 중 하나인 《Contes Sauvages》의 가면을 쓴 얼굴, 깃 장식, 새의 긴 주둥이와 동물가면을 쓴 얼굴은 익살극(희극)과 실전의 페리디에서 사진적 주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변장한 영혼과 유령은 문과 창문이 닫혀 있던 성의 광대한 방안에 나타나며, 그곳의 벽과 지붕의 파편, 옛 장식의 잔해는 시간과 시대에 대한 증인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Hôpital》 시리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낮은 페허 속에서 보여지는 풍경은 한때 이곳이 병원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감각적 추측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현 시대의 예술은 목로나 해양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준다. 그것은 가법형에 관한 어렵듯한 가능성으로 다가오며 가끔씩 아름다움의 균열에 대한 표현방식이 현실보다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데, 그녀의 사진 시리즈인 《Contes Sauvages》와 《Hôpital》은 가면을 쓴 주제에 관한 물음과 동시에 컨셉의 변형이다. 그녀의 사진들은 다시 가면을 쓰고 느껴지지 않고 포착할 수 없도록 변형된다. 또, 유동하는 그녀는 사진적 테크닉에 의해 사진의 주제들과 동일시된다.



La pause - ©Estelle Lagarde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감정은 '죽음'의 정서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진은 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는 대상이 현재의 우리에게 출몰하는 유령(spectrum)과도 같은 속성을 지녔다.」

Roland Barthes는 《이미지의 수확사》에서 이미지라는 단어의 기원을 “이미타리(imitari)”에서 찾았다. 그것은 모방(mimétique)과 교차하는 지점의 언어이다. 사실, 라틴어 ‘이마고(imago)’는 재현적 유사성의 현상적 의미를 말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유형 같은 이미지이고, 또한 이미지는 하나의 미술이다. ‘사진은 과거를’ 회상시키지 않는다. 사진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효과는 사라진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존재했음을’ 증언하는 데에 있다.

사진을 사진으로 만드는 단 한가지 본질은 ‘사진 속의 대상이 전에 존재했던 것’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감정은 ‘죽음’의 정서이고, 그러한 점에서 사진은 전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는 대상이 현재의 우리에게 출몰하는 유령(spectrum)과도 같은 속성을 지녔다. 그것은 우리가 사진에 찍힐 때 마다 나타난다. 사진에 찍히는 바로 그 순간 주체(subject)는 대상(object)으로 바뀌는데, ‘주체가 영원한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죽음이라면, 사진에 찍히는 순간은 ‘죽음의 축소된 형태’이자 ‘유령’의 상태(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여있는 상태가 되는 순간인 것이다. To

Estelle Lagarde
에스텔 라가르드

• Exhibitions

Expositions personnelles

- 2009 Galerie Lefor Openo, Paris 6ème
- Galerie Dialogos, «3 séries photographiques», double exposition Paris 3ème/Cachan
- 2008 Galerie Little Big Galerie, Constance Lequesne, Paris 18ème
- 2007 Bibliothèque François Villon, Rencontres Photographiques du 10^{ème}, Paris
- MK2 Bibliothèque, Paris 13ème
- 2006 Galerie AAB, Paris 20ème

Expositions collectives et salons

- 2009 Crane Kalman Brighton Gallery, Millenium Print Collection, Brighton, Grande-Bretagne
- Musée de Tianjin, Chine
- Pingyao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Chine
- Musée Robert Dubois Corneau, Brunoy (91)
-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Photographie, exposition Charlet-Photographies, Arles
- Art Bridge Gallery, Beijing, Chine
- Nuit de la Photographie Contemporaine, Paris
- Salon Europ'Art, Genève, Suisse
- Galerie Brissot et Linz, Paris 7ème
- Festival du film de Portneuf, Québec
- Montréal en Lumière, La Nuit Blanche, Mouvement Art Public, Montréal
- Cités des Arts, Quinconce des Jacobins, Le Mans
- 2008 Manifestation d'Art Contemporain MAC 2008, Espace Champerret, Paris
- Nuit de la Photographie Contemporaine, 1^{ère} édition, Paris
- Centre Culturel Condorcet, Viry-Chatillon
- Centre Iris, Carte Blanche à Dominique Charlet, Paris
- Espace Dialogos, «Se remet-on jamais de l'enfance ?», Vèa Xiradakis, Cachan
- Centre Culturel Saint Jérôme, Toulouse
- 2007 Manifestation d'Art Contemporain, MAC 2007, Espace Champerret, Paris
- Les Rencontres Leica, Espace Commines, Paris
- Le Bunker, Festival Manifesto, Toulouse
- Installation au Parc des Enclos, «Zoo», avec l'Arpac, Deauville
- Espace Dialogos, «Polyvisions et Métamorphies», Cachan
- Galerie AAB, exposition «Dé-visage(s)», Paris
- 2006 Espace Beaurepaire, rétrospective dans le cadre du Mois de la Photo-off, Paris
- Agence Ebloui, sélection photographies d'auteurs, Mois de la Photo-off, Paris, Delta, Paris
- Espace Beaurepaire «Visions de Voyage» avec Paris-Photographique
- 2005 Galerie St-Martin, Paris 10ème

Bourses et prix

- 2009 Bourse du Talent n°38, finaliste, www.photographie.com
- Bourse d'aide à la diffusion, série «Hôpital», Fondation E-C-Art Pommaret
- 2007 Bourse d'aide à la création, série «Contes Sauvages», Fondation E-C-Art Pommaret
- 2006 2^{ème} prix, catégorie «les gens», Concours Images Internationales, Photo Sélection.

• Contact

Estelle Lagard

Lives and works in Paris
www.estellelagarde.com
contact@estellelagarde.com

Galerie Lefor Openo

29 rue mazarine 75006 Paris
Tel : 33 01 46 33 87 24
www.leforopeno.com
leforopeno@aol.com